

능력을 보시하는 향기로운 인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원력과 진력으로 이룬 법학의 결실을 여법하게 나누는 것은 겨울의 문턱에서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뭇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법학이라는 전문의 영역에 연기영 교수님의 인성적 정진과 소회가 묻어나는 것도 덧붙은 결실이자 법학자로서의 남다른입니다.

이제는 스포츠가 일상생활과 밀접해졌고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의 한 범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견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로 받침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합리적으로 구체화한 공적은 현대인의 관심사에 부응하는 모범적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무엇을 절실하게 요구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시대를 읽어가는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회와 법학계의 소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시하여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빼어난 공덕입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많은 사람들과 향기로운 인연을 맺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법제도가 그러하듯이 법학자로서의 올곧음은 일생의 기준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 그 바탕에 평소의 정성과 온화함이 배어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와 후학에게 귀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학계와 후학의 존경 속에서 인성적이고 바른 사회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